

2026

Vol.49

열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

코스카레터

| KOSCA MESSAGE | KOSCA NEWS | KOSCA INFO | KOSCA TODAY | KOSCA TOGETHER |

▶ KOSCA세움정원 전경(해운대 수목원 내)
200년 된 노송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뉴스레터

코스카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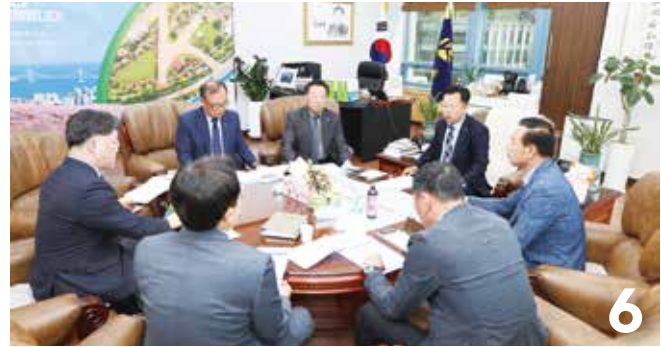
2026 Vol.49

발행인 회장 김형겸
기고/투고 kosca21@kosca.or.kr
편집/발행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디자인/제작 거북인쇄공사 (051. 808. 5571)
일러스트 거북인쇄공사



표지이야기

전문건설인의 꿈과 열정으로 조성한 푸른 공간,
부산시민의 쉼터 KOSCA세움정원



KOSCA MESSAGE

05 권두사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강무길

KOSCA NEWS

- 06 협회소식
- 제회의 및 행사
-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 12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 19 특허 및 신기술 소개
- 2026년 2/4분기 건설신기술 현황



9



10

KOSCA INFO

- 20 **회원 스포트라이트**
 - 대한기술개발(주) 대표이사 신미옥
- 22 **건설산업정보(법령개정) PART1**
- 24 **건설산업정보(회원사안내) PART2**
- 35 **건설 관련 유권해석 및 판례**
- 38 **전문가칼럼**
 - 건설관련 법 상담
 - 세무관련 법 상담

KOSCA TODAY

- 41 **회원사 현황**
 -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 부산시회 신규회원 현황
- 44 **협회·조합 소식**
 -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부산시회 2026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 45 **2026년 건설업 교육**
 - 2026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 46 **건설현장 안전관리 노하우**
 -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및 대응 가이드

KOSCA TOGETHER

- 48 **부산의 명소**
 - 바다를 품은 삶의 터전, 영도 해녀촌
- 50 **세계의 아름다운 건축물**
 - 치첸이트사
- 51 **소통하는 문화공간**
 - 힐링 무비
 - 힐링 북
- 53 **오늘의 트렌드**
 - 소유보다 경험, 구독경제가 바꾸는 소비의 미래
- 54 **글로벌 이슈**
 - 희토류 전쟁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
- 55 **슬기로운 생활꿀팁**
 - 냉장고 정리의 시작 '한칸 비우기'
- 56 **하루 5분 건강**
 - 건강습관 /건강음식
- 58 **독자와 함께**
 - 회원사 참여 마당(독자의견 및 퀴즈)

새로운 길을 열어갈

더 나은 미래

전문건설인이 함께합니다!

항령산 벚꽃길처럼 지역과 함께 피어나고,
KOSCA세움정원과 같이 미래를 세웁니다.

2025년 9월
KOSCA세움정원 준공

1996년 4월
항령산 벚꽃길 조성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강 무 길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부산의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문건설인 여러분!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강무길입니다.

전문건설인의 소통과 교류의 장인 『코스카레터』를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 속에 제10대 부산광역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우리 의회는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든든히 지키고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각오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이러한 다짐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산업의 싹틔줄과 같은 건설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입니다. 지역의 자본과 인력, 기술이 선순환하고 경기 회복을 견인하는 필수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하면서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건설경기의 침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위축은 연관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부산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이 흔들린다면 부산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 건설산업이 위기와 전환의 갈림길에 선 지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털어 줄 제도적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지역 전문건설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의 건설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의회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적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부산의 새로운 도약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대한전문건설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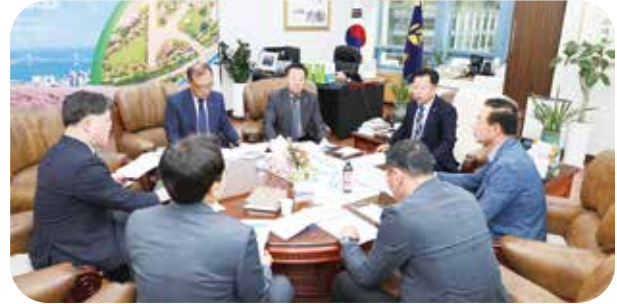
제회의 및 행사

01

2026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회의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4월 27일(11:00 / 우리사회 사무처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2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입법예고 대응, KOSCA세움정원 가구기사업 및 유지관리, 연수회 및 중앙회 행사 등 주요 안건에 대해 협의했다.



02

2026년도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5월 12일(10:00 / 부산 다대포 물운대) 회원사의 단합과 건강증진 등을 위해 회원사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을 실시했다.

이번 산행에서 회원사들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출발해 다대포 물운대까지 오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우의를 다지는 등 협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03

2026년 상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 실시

부산사회(회장 김형겸)는 5월 15일(14:00 / 부산 전문건설회관 4층 회의실) 회원사의 고충 해결과 당면한 애로사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2026년 상반기 건설 분야 전문가 법률상담 등 무료자문」을 개최하였으며, 법률, 노무, 세무회계, 신기술·특허 분야 16건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에서는 부산사회 이윤근 자문변호사가 발주자 및 원도급사와의 분쟁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 등에 대해 상담했으며, 여찬모 자문노무사로부터 임금명세서 작성방법 및 교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관리, 4대 사회보험 및 퇴직금 분쟁 등 노무 분야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상담이 이루어졌다.

부산사회는 그 외에도 회원사 재무상태 등과 관련하여 문상용 공인회계사가, 신기술, 상표 등록 등에 대해 김성현 변리사가 유선으로 전화상담을 진행하여 회원사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다.



04

2026회계연도 제4차 회장단회의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6월 10일(10:30 / 우리시회 사무처 회장실) 회장단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회계연도 제4차 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KOSCA세움정원 가꾸기사업 및 유지관리 관련 협의 및 2026년 협회 주요 행사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05

개정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및 노무강습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6월 29일(14:00 / 부산상공회의소 2층 국제회의장)에서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하도급 법령·건설분쟁 대응 및 노무관리 강습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습회에서는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현장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노란봉투법과 포괄임금 등과 관련한 건설현장 노무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삼정 노무법인 김유진 노무사의 강의가 있었으며, ‘개정 하도급 법령과 건설분쟁 관련 하도급 공사대금 해설’이란 주제로 법무법인 청린 허순만 소장의 강의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참석하지 못한 회원사를 위해 강의 동영상 및 교육교재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osca21.or.kr) 등에 게재하여 회원사에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사 수주지원 및 업역 확대를 위한 간담회 활동

01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건설본부장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4월 14일(11:00 / 부산시 건설본부장실) 부산광역시 건설본부(본부장 김효숙)를 방문하여 김효숙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부장급 간부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협회 김형겸 회장은 지역 건설산업과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지원해 주신 건설본부에 감사함을 전하며, “건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부산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종합적인 계획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복합공사에 실 시공사인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분할발주를 활성화 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김효숙 건설본부장은 “환율인상과 유가 상승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부산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02

부산시 동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및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4월 23일(14:00 / 부산광역시 동구청 2층 소회의실) 박진섭 동래구 부구청장과 동구 관내 시공사인 성무건설(주)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갖고, 업계의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 침체된 건설환경으로 인한 부산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동구와 부산전문건설협회, 관내 건설시공사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상호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



0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5월 11일(11:30 / 대가 박병호 스시 2층 회의실) 협회 회장단과 중앙1군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차 건설대기업 영남지사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형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동정세의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 불안과 건설자재 및 장비대여금 상승으로 힘든 상황”이라 말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와 부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등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건설 현장에서 부산 전문 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가 70% 이상 이루어져 함께 지역 사회가 함께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주)HJ중공업 홍용국 영남지사장(건설대기업 영남지회장)도 “부산전문건설사업자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해 협회와 더욱 협업하여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04

2026년 상반기 대형건설현장 하도급 실태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5월 21일, 5월 28일, 6월 9일, 6월 11일 4일간 부산광역시 하도급관리팀과 합동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공사」, 「르엘리버파크 센텀 신축공사」, 「해운대구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공간 꿈 나눔터 건립공사」, 동래구 「사직1-6 지구 재건축사업」 등 지역 내 6개 대형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불법하도급 및 건설부조리와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하도급대금 미지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부당특약 설정 및 임금체불 점검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현장에 보다 많은 부산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공종별 우수 전문건설업체 추천이 필요한 경우 협회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안내하였으며, 불법·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와 특히 장마철 안전점검 강화 등 현장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05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김희정 국회의원과의 정책 간담회 개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5월 22일(12:00 / 대가 박병호 스시 2층 회의실) 김희정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협회 부산시회 김형겸 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중동사태 등으로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환경을 만들기 위해 직접시공 중심의 건설산업 생산체계 원상회복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소규모 전문공사 전문시공 원칙 제도화’, ‘전문공사 분리발주 제도 활성화’, ‘의제부대공사 범위 합리적 확대’, ‘종합공사 동일업종 하도급 제한 등 불법·편법 하도급 방지대책 강화’ 등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희정 의원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부산전문건설업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건설경기 회복과 전문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6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 실시

부산시회(회장 김형겸)는 6월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본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부산지사와 합동으로 LH가 발주한 「울산 다운 2 A-1BL 및 A-2BL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원도급사 : ㈜모아주택산업, ㈜신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2026년 상반기 하도급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과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전반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였으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함께 동행하여 퇴직공제 신고 및 전자카드 사용 실태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점검에서는 하도급 점검과 함께 다가울 장마철 안전점검 강화 등 현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시행사에 당부하였으며, 부산 시회는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점검을 강화를 통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수주지원 및 제도개선사업

수주지원

01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접수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여부 확인 추진

건축물 철거(해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의거 해체 전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동 건축물의 해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를 업무영역으로 하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업자(건설폐기물처리업자 등 일반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수행하고 있어 적법하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자의 업무영역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해체공사 무등록 시공에 대한 우리협회 회원사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1,500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지 않고 시공이 가능하나, 최근 광주 학동 참사에서 드러나듯 건축물의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인명·재산적 손실은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실정임에 따라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건축물의 해체공사는 전문성을 가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고 부산시회는 강조했다.

이에 부산시회는 5월 29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청 건축과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신고)서 및 해체계획서 접수·검토 시 건축물 해체를 수행하는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업 무등록 시공 근절을 통한 건전한 건설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추진했다.

더불어, 해당 구(군)청 관내 건설업 무등록 시공자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현장점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수주지원

02

조경식재 유지관리 관련 국토부 유권해석 및 서울시 정책추진 사항 안내

발주처 관리 소홀로 인한 고사 시공사 전가 위법 유권해석 시달 “조경식재 특수성 반영한 사후관리 사업 및 품셈 할증률 개선 적극 활용 당부”

부산시회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조경식물의 시듦과 고사, 병해충 피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발주자의 유지관리 책임을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부당하게 전가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및 서울특별시의 정책 개선 사례를 6월 8일 회원사에 안내했다. 조경식물은 기상 여건과 준공 후 관수·전정 등 적절한 유지관리 여부에 따라 생육 상태가 크게 좌우되므로, 시공 품질과 별개로 발주청이 적정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직접 관리해야 하는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발주청의 유지관리 책임과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을 명확히 분리하고, 발주처의 유지 관리 소홀이나 가뭄·혹서 등 불가항력적 요인으로 발생한 고사 피해를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는 위법함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는 자치구에 시비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체가 준공 후 사후 관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을 도입·추진하고 있다. 또한 옥상이나 산림형 임야 등 시공 여건이 열악하거나 특수목을 식재하는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수목 및 초화류의 할증률을 10% 이내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경식재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한 품셈 적용 지침을 대폭 개선했다.

부산시회는 “조경식재공사 준공 후 발주처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가 발생할 경우 이번 국토부 유권 해석 조항을 근거로 적극 대응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시회 차원에서도 관할 지자체 및 주요 발주청과의 간담회와 회의 시 서울시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조경 사후관리 사업 시행과 10% 이내 할증률 예외 규정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제도개선

0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발의) 찬성의견 개진 긴급 추진

전문건설 보호구간 ‘10억 원 상향’ 및 ‘영구화’ 법안 통과 총력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보장 위한 핵심 법안, 조속한 입법 촉구”

부산시회는 4월 15일,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예고(4월 9일~4월 18일) 과정을 거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사수하고 보호구간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회원사 중심의 적극적인 찬성의견 제출 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시장 진출 제도 도입 이후 심각한 수주 절벽에 내몰린 영세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현장의 고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전문건설 보호구간 기준을 현행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상호시장 보호구간의 일몰 규정을 삭제하여 이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동 법안이 전문건설업계의 경영 안정과 불합리한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조속히 심의·처리되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회는 전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을 통한 찬성의견 개진 요청 공문을 긴급 발송하고,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최근 원자재 가격과 노무비 급등으로 인해 과거 소규모 공사들이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회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입법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0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발의) 찬성의견 개진 긴급 추진

영업보호구간 ‘대통령령 위임’ 및 ‘일몰제 부칙 삭제’로
유연성·안정성 확보

부산시회는 4월 23일, 국회에 발의되어 입법예고(4월 22일~5월 1일)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찬성의견 제출을 긴급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영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4억 3천만 원 미만으로 경직되게 설정되어 있는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급변하는 건설업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한시적 적용을 규정한 일몰제 부칙을 과감히 삭제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급변하는 자재비와 노무비 등 시장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자 영세 업체의 생존권을 지키는 중차대한 법안으로 판단했다. 시회는 공문을 통해 회원사 소속 임·직원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주변 지인들에게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다해줄 것을 긴급 당부하며 입법 동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영업보호구간의 대통령령 위임과 일몰제 삭제는 영세 전문건설업계가 안정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문진석 의원 발의안과 더불어 전문업계의 목소리가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사와 함께 지속적인 입법 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0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발의) 의견 제출

전문보호구간 축소 우려 원천 차단, 영세 전문업체 보호 장치 강화

부산시회는 4월 27일, 국회 입법예고에 발맞추어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구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회 검토의견서」를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부산시회는 이번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일몰제를 폐지하고 보호구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하위법령 위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호구간 축소 우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문 수정안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상호시장 개방 이후 종합업체의 전문 영역 진입 확대로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기준 금액이 ‘10억 원을 하회할 수 없다’는 최소 보호수준 하한선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공사비와 노무비, 자재비 등 급변하는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보호 금액이 적정하게 상향 유지되도록 하는 운영 원칙의 명문화도 강력히 건의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대통령령 위임 시 전문공사 보호구간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단서 조항에 ‘10억 원 하한선’이라는 최소한의 법적 빗장을 걸어두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우리 영세 전문건설업 회원사들이 물가 상승과 수주 불균형 속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안 반영을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04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관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건의 제출

가덕도신공항 하도급 의무화 및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제정 촉구

부산시회는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에 지역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생존권 확보와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건의서』를 공식 제출했다. 시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부산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하도급 참여 실효성 확보와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선 시회는 총사업비 약 15조 9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전문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에 지역기업 우선 하도급 노력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비구속 적인 권고 수준에 불과해, 외지 대형 원도급사들이 기존 수도권 협력업체 위주로 동반 진입하면서 부산 지역 업체 들이 배제되는 심각한 수주 절벽을 지적했다. 이에 수주 원의 예산 투입에도 지역 내 자본 선순환이 가로막히는 낙수효과 차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개정하여 전체 하도급 금액의 30% 이상을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 비율로

의무화하고 이를 입찰 가점 등 인센티브와 연계해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회는 부산지역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5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의 품질 저하와 부실공사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제정'을 건의했다. 소규모 공사는 인건비, 장비비, 운반비 등이 저가·과소 산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은 별도의 설계기준이 없어 발주기관이나 설계자의 재량에 의존해 동일 공종 간에도 공사비 산정 편차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미 서울, 인천, 광주 등 일부 광역지자체는 별도 기준을 운영 중인 만큼, 부산시도 지역 여건을 반영한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을 조속히 제정·시행하여 적정 공사비를 확보 하고 시공 품질과 현장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대형 국책사업의 혜택이 지역에 고루 돌아가도록 유도하고, 만연해 있는 소규모 공사 과소 설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정치권 및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0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찬성의견 개진 추진

대규모 해체공사 행정절차 효율화 및 감리 지정 기준 합리화 도모
“복잡한 해체공사 허가·신고 절차 간소화로 회원사 행정 부담 완화 기대”

부산시회는 5월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해체공사의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해 입법 예고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501호 및 제2026-502호)과 관련하여 회원사 임·직원의 적극적인 찬성의견 개진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장 일선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해체공사의 관리·감독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로는 △한 관리자가 여러 건축물을 해체할 때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일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시행령안 제21조제7항),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의무적 건설사업관리 실시 공사는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시행령안 제22조제4항), △한 감리자가 복수 필지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시행규칙안 제13조제6항)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부산시회는 동 개정안이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와 시공 효율성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5월 20일까지 진행된 입법예고 기간 내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사 소속 임·직원은 물론 주변 지인들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찬성의견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불필요하게 중복되던 해체공사 관련 행정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여 회원사들의 시간적·행정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입법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6

2026년 제2차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과제 제출

실제 현장 여건 반영한 장비 기준 마련 시급

부산시회는 5월 15일, 부산광역시 기업지원과에 지역 전문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제2차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 규제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시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도심지 공사의 작업 여건을 반영한 설계 할증 현실화와 이원화된 해체공사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시회는 상·하수도나 포장 등 전문건설 공사가 주로 주거밀집지역 및 도심지 도로에서 시행되는 현실을 짚으며 현장 맞춤형 장비 적용 기준 마련을 건의했다. 현재 설계 단계에서는 교통통제나 출·퇴근 시간 제약으로 실제 작업

시간이 1일 6시간 내외에 불과하거나 도로 폭 6.0m 이하로 대형 장비 투입이 곤란함에도 일반적인 대형 장비 기준으로 공사비가 산정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한 전문 건설업체의 과도한 원가 부담을 덜고 시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형 장비 및 인력 병행 작업에 대한 품셈 할증 보정 기준과 부산시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실무상 해체심의 신청과 해체허가 신청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도면, 해체계획서, 구조검토자료 등 동일 유사 자료를 반복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하는 비효율성 개선도 건의했다. 인허가 기간 장기화로 장비·인력 대기 등 현장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최초 접수 시 심의와 허가 자료를 일괄 접수해 병행 검토하고 공통 서류의 중복 제출을 생략

하도록 규정하는 「건축물관리법」령 개정 및 통합 운영 지침 마련을 제안했다.

부산사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설계와 실제 시공 간의 괴리를 좁혀 적정 공사비를 보장받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모래주머니처럼 달고 뛰는 회원사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규제 개선 조치들이 지방계약법 예규나 건축물관리법령 등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조례 개정 및 중앙회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07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

사고 발생 시 참여 주체별 책임 명확화해야

부산사회는 6월 18일, 최근 빈발하는 해체공사 관련 중대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고 전문건설업체의 안전한 시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중앙회 경유)했다.

부산사회는 최근의 해체공사 사고들이 단순한 현장 관리 미흡이 아니라 △적정 공사비 부족 △무리한 공기 단축 △부실한 해체계획과 현장 여건의 불일치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인 문제임을 전방위로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건축물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해체공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밝히며 핵심 제도개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번에 제출된 주요 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정 공사비 및 합리적 공사기간 확보 : 최저가 중심 발주로 인한 안전관리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이행 비용을 별도로 계상하고, 무리한 공기 단축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 해체계획 변경절차 합리화 : 설계도서와 실제 구조물이 상이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안전에 영향이 적은 장비 변경이나 경미한 작업순서 조정은 감리자와 책임기술자의 확인만으로 처리가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건의
- 전문기술인력 운영기준 현실화 : 공정 진행에 따른 구조 안전성 변화에 대응하되,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경영 여건을 감안한 공사 규모별 차등 배치기준 마련 요청
- 참여 주체별 책임 범위 명확화 : 사고 발생 시 시공자에게만 책임이 집중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획수립 오류나 공사비·공기 부족 등 시공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에 대해서는 발주자·설계자·감리자 등 참여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요구

부산사회 관계자는 “해체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최저가 낙찰이나 과도한 공기 단축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시급하다”며, “우리 회원사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대가를 받으며 책임시공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08

상호시장 불공정 경쟁체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김희정 의원 발의)

부산사회 전방위 입법 소통 결실, 전문공사 보호구간 10억 원 확대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 이끌어내
“영세 전문업역 피해 방지 위한 교두보 확보, 법안 조속 통과 위해 역량 집중”

부산사회가 불합리한 상호시장 진출 제도로 촉발된 수주 격차를 해소하고 영세 전문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추진해 온 다각도의 입법 건의 노력이 마침내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6월 18일,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이 대표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식 입법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시장 개방 이후 대형 종합건설사업자의 무차별적인 진입으로 영세 전문업체가 입은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안전장치들을 담고 있다. 주요 골자는 첫째,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전문공사 영업 보호 구간을 현행 4억 3천만 원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하고(안 제16조제1항), 둘째,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상호시장 보호구간의 일몰 규정을 과감히 삭제하여 이를 ‘영구화’하는 것이다(부칙 제2조 삭제). 셋째,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수주 기회를 넓히기 위해 의제부대공사 허용 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현실화 및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안 제16조제2항).

이번 법안 발의는 부산사회를 비롯한 전문건설업계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한목소리의 대응이 빚어낸 소중한 결실이다. 사회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회 및 중앙회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부산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급격한 물가 상승과 자재비 인상 등 변화된 현장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위기에 처한 전문건설업계의 생존권을 지켜줄 최소한의 빚장”이라며, “우리 사회가 주도적으로 소통해 이끌어낸 입법안인 만큼, 조속한 심의와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원사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6년 2/4분기 건설신기술 현황

지정번호	개발업체	신기술명	주요 내용
1047 (2026.03.24)	(주)유엔에스엔지니어링, (주)동해종합기술공사, (주)경동엔지니어링	버팀보의 지간을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 공법	기존의 직선형태의 띠장을 아치형태로 흠막이 가시설 띠장에 적용한 공법으로 버팀보의 지간을 증대시킨 아치형 띠장(TAW, Tied Arch, Wale) 공법
1048 (2026.03.27)	(주)이산, 동부건설(주), (주)서울화인, 남일건설(주)	이동식 대좌장치와 강선통과구가 특징인 공장제작형 띠장을 이용한 후천공 방식의 앵커식 흠막이 벽 가시설 조립형 단띠장 공법 (ISN띠장)	복부스티프너 등의 보강재가 띠장에 부착되고 강선통과구가 형성 되어 있으며, 강선통과구에 적합한 이동식 대좌장치로 구성된 공장 제작 단띠장으로, 현장용접 등의 작업을 최소화하고 조립식 시공이 가능하며, 띠장에 형성된 강선통과구와 이동식 대좌장치를 통해 강선의 집중응력을 완화시키고, 띠장 설치 후 천공이 가능한 흠막이 앵커 단띠장 공법
1049 (2026.04.10)	디엘이앤씨(주), (주)한솔홈데코	런너형 방수턱과 광물계 섬유 보드를 활용한 옥실용 건식벽 체 방수 시스템	이 신기술은 비대칭 런너형 방수턱에 건식 벽체가 설치되고, 비노출 우레탄 도막, 우레탄 실란트 및 런너형 방수턱에 의해 3중의 방수 라인이 형성되고, 광물계 섬유보드로 구성된 방수형 건식 벽체의 전면에는 대형마감재인 벽체방수패널이 시공되며, 단부에는 클립 가공에 의해 L자형 단면의 단턱부가 형성되어 이웃하는 벽체방수 패널과 단순 겹침 이음에 의해 접합된다. 선시공되는 벽체방수패널은 배면에 도포되는 실리콘계 접착제와 단턱부에는 체결된 타정못에 의해 건식벽체의 석고보드에 고정된다.
1050 (2026.06.08)	(주)힐엔지니어링, (주)토문엔지니어링 건축 사사무소, (주)아이엔지그룹 건축사사무소	슬롯용접 방식 보강강판(다이 어프램) 선조립 무수축모르타르 충전강관 기둥을 이용한 건축구 조물의 내진보강공법	ㄷ형 철골기둥과 I형 강판에 보강강판(다이어프램)을 선조립한 후 ㄷ형 철골기둥과 I형 강판을 용접으로 접합한 무수축모르타르 충전 강관 기둥을 건축구조물의 기둥에 접합한 후 철골보를 연결하여 모멘트골조 프레임의 형성을시켜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기술

※ 출처 :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www.kcnet.or.kr) → 신기술현황 → 지정현황(건설신기술)



전문건설인 비전과 도전



대한기술개발(주) 대표이사 **신미옥**

첫인상이 당당하다. 그러면서도 믿음을 주는 여장부 스타일이다. 신미옥(62) 대한기술개발(주) 대표.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는 엘리트 농구선수 출신이었다.

부산 영도 출신인 신 대표는 타고난 강한 체력과 재능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농구의 명문인 동주여중과 동주여상에서 농구선수로 이름을 떨쳤다. 전국 최우수선수상을 받았을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펼쳤고, 실업팀(신용보증기금)에 입단해 우리나라 여자농구의 전설 박신자 감독 아래서 코트를 누볐다. 열심히 선수 생활을 했기에 국가대표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팀을 무단이탈했다. 박 감독이 직접 부산집으로 내려와 복귀를 설득했고, 아꼈던 팀에서 월급까지 줬지만 막무가내였다.



더는 선수로 뛰지 않겠다는 거였다.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자유롭게 놀면서 공부하는 생활이 너무 부러웠죠. 실업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더라도 미래가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그의 중고교 생활은 강도 높은 훈련의 연속이었다. 새벽에 일어나 학교 체육관으로 가서 종일 훈련해야 했다. 또래 학생들이 즐겼던 소풍이며 수학여행은 꿈도 꾸지 못했다. 그렇게 엄매인 생활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다는 거다. 그렇게 농구선수 생활을 접고 동아대에 진학하게 된다.

하지만 운명은 신 대표를 편하게 두지 않았다. 외환위기 당시 두 자녀를 데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야 했던 그에게 남은 것은 카드빚 1억 원이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어떻게든 입에 풀칠은 해야겠다는 일념뿐이었다. 유행했던 김밥가게를 시작했다. 하루 서너 시간씩 쪽잠을 자며 구슬땀을 흘렸다. 다행히 선수 출신인지라 체력이 뒷받침되었기에 5년도 안 돼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

신 대표는 이때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된다. 초등학교 교재사업을 해보란 거였다. 당시만 해도 나라에서 학교 준비물에 대해 지원을 해줄 때여서 ‘현금 장사’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긴 그는 무릎을 쳤다. 예상대로 쏠쏠한 이익이 따라왔다. 성실히 일하는 그를 눈여겨본 한 교장 선생님이 그에게 학교 공사를 맡기면서 나라장터에 등록하라고 권유했다. 관급공사를 하면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였다. 그 대가없는 도움이 본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였다. 이때 신 대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경험칙이 있다. ‘힘이 닿는 한 나누고 도우며 살자.’

초창기엔 카달로그를 들고 관공서나 학교에 직접 찾아가야 했다. 담당 직원이 제대로 상대를 해주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였다. 아예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자료를 두고 가세요”라고 하더라. 쏟아지려는 눈물을 꼭 참고 수모를 견뎌내야 했다. 관급 공사가 있는 곳이라면 전국 곳곳을 누비는 신 대표. 6년 전

휴전선 인근 휴게소에 군인들의 삼엄한 감시 아래 강화유리 난간대를 설치했고, 세종시 정부청사 출입구 차양시설도 그의 작품이다. 부산 시청 4층에 설치된 강화유리 난간대 역시 대한기술개발이 시공했다. 신 대표의 여장부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낸 한 대목. 부산진중 운동장에 메쉬펜스를 설치했는데, 보름 만에 태풍이 와서 넘어져 버렸다. 자연재해였기에 신 대표의 잘못이 아닌 상황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담당교육청에서 실수로 재해보험을 들지 않았던 거다. 딱한 사정을 알게 된 그는 흔쾌히 무료로 재설치 공사를 해줬다. “앞길이 창창한 담당 직원을 살린 셈 쳤죠. 저야 다시 벌면 되니까요.”

세계적인 심리학자이자 경영사상가인 애덤 그랜트가 말했다. “주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 상식적으로 보면 비즈니스는 경쟁의 정글이다. 더 가져야 이긴다. 주는 사람은 호구가 된다. 하지만 그랜트의 연구에 따르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성공의 사다리 맨 위에 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맨 밑바닥에도 주는 사람이 위치한다. 차이는 ‘어떻게 주느냐’에 있다. 현명하게 주는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기 희생만 하면서 무작정 퍼주면 바닥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버(giver)는 ‘주면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나도 더 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전문건설에 문의한적이었던 신 대표는 성공하는 기버가 되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는다. 가장 먼저 사랑을 나누며 봉사하는 삶에 눈을 돌린다. 강서사랑봉사회 부회장, 밝은사회국제클럽 부회장, 로타리 클럽 이사,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장, 강서통합방위 협의회 부의장 등 굵직한 직함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김해에 700평 규모의 공장을 사들인 그는 사업 확장을 계획 중이다. 이미 두 가지 큰 그림을 그렸다. 주력 부문인 차양을 용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설치하는 특허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하나는 강가 체육 시설 펜스에 오염물질이 걸리지 않도록 비 올 때 사무실에서 자동 조작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지재유경(志在有經),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신 대표는 걸림돌을 두려워하지 않고 디딤돌 삼아 걸어왔다. 절망해도 쓰러지지 않고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이 거친 세상을 헤쳐 온 오뚜기 정신, 그리고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 모습이 참 멋지다.

글. 최원열

01 |

계약예규 일부 개정 안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 발표한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26. 2.25)등에 따라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가 일부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 단계적 지급 의무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
 - 선금 최초 지급시 계약금액의 30~50%(의무지급률) 지급 → 이행여부 점검 후 70%까지 추가지급 (‘26. 7. 1 시행)
- 선금 사용내역 확인 강화 및 반환청구 요건 확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6조·제38조)
 -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선금내역 확인 미협조 시 선금반환청구 (‘26. 4.30 시행)
- 선금 관련 계약 해지 기준 신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 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26. 4.30 시행)

2. 시행일 : 2026.4.30.(목)부터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시행 안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이 개정 및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개정 사유

- 종전에는 적격심사 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에 미달하는 경우 이를 명확하게 평가하는 기준 부족.
- 이에 조달청에서는 적격심사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유지하지 않는 업체의 낙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함.

2. 주요 개정내용

- 등록기준 실태조사
 - (현행) 기술자 보유 현황 확인
 - (개선)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조사 등 건설면허 등록기준 현장조사 확인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허용

3. 수행능력 결격사유 평가 기준일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등)을 충족하여야 함

4. 단, 다음 각 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등록기준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면 수행능력 결격 사유로 보지 않음

- 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② 영업소소재지 변경으로 인하여 사무실의 등록기준에 미달
- ③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④ 업을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 ⑤ 건설업양도신고가 수리된 경우로서 양수인이 동법 제13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지 못한 기간이 수리일로부터 50일 이내인 경우

*참고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 시행령 동조 1의 4호, 2~4호

5. 수행능력 결격사유 확인시(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5)

-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기준(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에 미달하는 경우 수행능력 결격사유로 보아 감점 처리
- 적격심사 및 현장 실사 과정에서 기준 미달이 확인되면, 별도의 보완 기간 부여나 재심사 기회 없이 즉시 감점 처리(낙찰 배제)

6. 시행일 : 2026.4.30.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

03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내용

- 본점소재지 인정 요건 신설
 - (현행) 입찰공고일 **전날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 (개정) 입찰공고일 **180일전까지** 해당 시도 소재 업체 지역제한 입찰 참여 허용

2. 시행일 : 2026.10.25.

※ 자세한 내용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1 |

건설자재 수급 불안정 대응 및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 운영 안내

최근 중동지역의 긴장 고조에 따라 원유가격 상승 및 자재 납기 지연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자재 수급 차질은 현장의 공정 지연과 비용상승으로 연계되어 건설업계에 직접적인 경영 부담이 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우리시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중동전쟁 기업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 **제출 내용** :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한 자재 수급 차질 및 공사비 상승 등 건설 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2. **제출 방법** : 중동 전쟁 관련 기업 애로 신고서 작성 후 우리시회에 팩스 제출 (FAX : 051-633-0261)
3. **제출 기한** : 수시 접수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2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 콘텐츠 목록 안내

우리협회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건설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10.13)을 통하여 안전정보 제공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매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부산시회는 건설·시설 안전 및 안전산업과 관련 정보를 회원사에 안내하며 건설현장 안전문화 정착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 매월 안내드리는 안전 콘텐츠는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3 |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지붕공사 중 지속적인 근로자 추락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붕공사의 경우 사전 신고없이 진행되고 고령자 참여비중이 높은 소규모 공사인 경우가 많아 보다 철저한 안전점검 및 예방조치가 요구되므로 지붕공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을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시회에서는 소속 현장에서 지붕공사 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요 안전수칙을 안내하였다.

■ 주요 안전수칙 내용

-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 안전화 ·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관리감독자는 보호구 착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것
- 지붕의 가장자리에는 안전간판 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할 것
- 작업통로용 발판과 채광창 안전 덮개를 설치할 것

- 지붕 위 작업장소 및 통로에는 폭 30cm 이상의 작업발판 등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이동할 것
- 비계 및 가설 구조물의 안전상태를 수시로 점검 및 보강할 것
- 작업 전 · 중 · 후 안전교육과 위험요인 사전제거를 철저히 할 것
- 불안전 작업 발견 시 즉시 중지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할 것
- 강풍 · 폭우 등 악천후 예보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충분한 안전 조치를 시행할 것
-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 및 고소작업 적합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 고소작업 신고대상(5m 넘는 시설 등) 공사의 경우 관계기관 신고 철저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4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개요

1. 사업소개

중·소규모 사업장이 3개월 간 무료로 업무대행 및 자문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

① 인사·노무, ②세무·회계(4대보험), ③기타(프로그램등)

2. 지원대상 중소규모 사업장

- ① 공사예정금액 300억 미만
 - ②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완료
 - ③ 퇴직공제 근로내역 신고 또는 신고예정
- (※ ①~③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3. 참여비용 : 무료 지원

4. 지원기간 : 사업기간('26.4.1. ~ 12.31.) 내 총 3개월 지원

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 '건설e음' 사이트 내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퇴직공제 업무대행 상생협력 시범사업 안내-수행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업무대행기관으로 개별 신청
- 이메일 제출 : 공제회 이메일(eassist@cw.or.kr)로 제출

6.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 공제사업관리부(02-519-2138~9)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5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인상 안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20. 5.26부터 약 6년간 동결(6,500원)하고 '26. 4. 1부터 부금 일액을 인상(8,700원)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내용

1. 변경사항 :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기존) 6,500원 → (개정) 8,700원*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소요금액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상 직접노무비의 2.3% 이내에서 인상

2. 적용시기 : '26. 4. 1.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공사부터

- 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6. 4. 1. 이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6 |

2026년도 건설품질 관련 컨설팅 사업 안내

최근 건설현장 품질시공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품질 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

1. **건명** : 2026년도 건설품질 관련 컨설팅 사업
·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제도개선 연구용역」에 따른 시범사업
2. **목적** :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건설품질 관리 역량 제고
3. **내용** : 품질관리 전문기관의 현장 방문 및 컨설팅 제공
· 비용 : 최초 1회 무료, 이후 추가비용 발생 가능(회당 약 50만원)
4. **대상** : 총 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건설공사 수행 업체*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참조
5. **문의** : 한국건설품질협회(070-4001-6845)
· 접수 : qseenc@naver.com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7 |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 안내

최근 중동지역 분쟁으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수급 불안 등 건설업계의 경영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조달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공공계약 지원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4월 16일 관련 내용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공공계약 지원 조치 주요내용

1. 계약금액 조정기간 완화 및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 활용
2.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지체상금 면제 및 실비 보상
3. 입찰보증금을 지급각서 대체 등을 통한 업체 부담 최소화
4. 주요 건설자재 가격조사 주기 단축 및 물가변동 금액 조정 지원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8 |

건설현장 대형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지침 안내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건설기계(항발기, 천공기 등) 전도사고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대형건설기계 전도사고 예방지침」을 발표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09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지원 및
근로자 생계비 용자지원제도 안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일시적 경영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1. 사업주 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지원

- 지원한도 : 사업주당 최대 1.5억 원 (근로자 1인당 1,500만 원 한도)
- 신청대상 : 중동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악화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문의처 : 국번없이 1350

2. 근로자 대상 : 체불근로자 생계비 용자지원

- 지원한도 : 최대 1,000만 원 한도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근로복지공단 방문
 - 온라인 접수 : 근로복지넷 (welfare.comwel.or.kr)
- 문의처 : 1588-0075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0 |

건설업 상호시장 입법 개정안 설명자료 리플릿 안내

우리협회에서는 상호시장 허용에 따른 부작용 증가 및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몰예정으로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경쟁체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건설업 상호시장 입법 개정안 설명자료 리플릿을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1 |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업무 수행 및
검사 수수료 할인 적용 안내

「한국건설산업품질연구원」(우리협회 출자 부설 연구기관)에서는 건설자재 품질시험, KOLAS 공인시험, 조달물품 검사 등 기존 업무와 더불어 최근 어린이놀이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회원사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검사 수수료를 회원사에 한하여 20% 할인 적용하고 있음을 안내하였다.

어린이놀이시설(조경시설물공사)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 등 의무검사를 받아야 함

- (홈페이지) www.kqici.re.kr (문의처) ☎ 031-322-0325~7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2 |

2026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안내

법무부 '26년도 숙련기능인력(K-point E-7-4) 운영계획에 따라 국토부의 건설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이 공고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 개요

-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개요 :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도 등을 평가하여 장기 체류 가능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해 주는 제도
- 신청기간 : ~ 2026. 12. 31. (쿼터 소진 시 조기 마감)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국토교통부 이메일(metel999@korea.kr) 신청
- 국토부 추천 건설업 쿼터 : 200명
※ (참고)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쿼터 6,200명

2.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기본 요건 : E-9·E-10·H-2 근로자를 1명 이상 정상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는 제외
- 허용인원 : 현재 해당 사업장 국민고용* 인원의 30% 이내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상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0.4(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 추천가능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20% 범위 이내
*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과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
- 건설업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 또는 연평균 공사금액 중 택 1'× 0.4 (1억 당 0.4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올림) 내에서 산정

3.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④ 요건 모두 충족)

- ① 최근 10년 간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 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계약을 맺은 자
-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사회통합 요건 특례(한시적 운영(~26. 12. 31.)) 〉

- 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 (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 (특례기간 종료 후 기존대로 적용)
- * 단, 가족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며,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요건 미충족 시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 연장

4. 국토교통부 추천 기준

- 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업자가 추천하는 외국인을 숙련기능인력 전환 대상으로 국토교통부가 추천
- ※ 필요 시 면접

항목	내용
신기술 지정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공사 관련 신기술 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건설기술진흥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사업자로 지정된 자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우수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결과가 우수한 건설사업자로 고용평가등급이 1등급인 사업자
기준재해율 준수	최근 3년간 건설업 평균재해율의 1배 미만으로 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자
건설관련 준수 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제공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항을 준수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제공 중인 사업자
정부포상 유공	중앙행정기관의 표창(공로패 포함) 이상 받은 사업자
기타	이 외에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 합법 고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자(별도 증명 자료를 평가) 등

5.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493)

※ 자세한 사항은 부산사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3 |

「신기술사용협약자 매칭 지원 사업」 안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 저변 확대 및 활용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건설등록증, 장비 소유 또는 임대, 기술 전수)을 갖춘 비보유 기업에도 「신기술사용협약증명서」를 발급하여 해당 공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신기술사용협약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공동으로 「신기술사용협약자 매칭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개발자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정보를 등록·조회할 수 있는 매칭 페이지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다.

1. 운영 일자 : 2026. 4. 27.(월)부터

2. 주요 내용 : 개발자·전문건설업체 정보 등록 및 상호 조회를 통한 매칭

3. 등록 방법

구분	등록방법	문의처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 > 전문건설현황 > 건설신기술 > 신기술사용협약 희망업체	업종기술지원팀 02-3284-1084
한국건설교통 신기술협회	한국건설교통신기술 홈페이지 > 로그인 > 신기술사용협약 > 신기술사용협약 희망업체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02-516-2649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4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관련 회원사 안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일용근로자의 제도 적기 편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를 기존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 입수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른 조치

1. 시행시기 : '26년 5월부터

2. 주요내용

-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안내 주기 변경 (기존) 분기 → (변경) 월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를 통한 매월 가입 대상자 안내 실시

3. 유의사항

- '25. 7. 1.부터 변경된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기준(월 8일 또는 소득 220만 원 이상, 사업장 단위 합산 적용) 既 시행 중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 가입 대상자에 대한 신고업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필요

4. 문의처

- (유선) 국번없이 1355
- (업무 매뉴얼) 국민연금 홈페이지 → 연금정보 → 자료실 → 기타자료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5 |

「굴착공사 신고제도」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산업통상부와 공동으로 굴착공사 관련 지하매설물 파손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굴착공사 신고제도」리플렛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1. 제도 개요

- 토지의 굴착공사 시 사전에 공사계획 통보 후 굴착 필요
- *근거법률 :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 등

2. 대상

- 도시가스사업 허가 지역,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허가 지역, 고압가스 배관 매설 지역 등

3. 절차

- 굴착공사자는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공사계획 신고
 - 발주자명, 굴착공사 회사명 및 담당자, 공사위치, 굴착 길이 및 공사예정 일자 등

4. 굴착공사 신고처

홈페이지	모바일앱	콜센터
www.eocs.or.kr	굴착공사 정보지원센터 앱 (EOCC)	1644-0001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6 |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 확대 안내

부산광역시에서는 중동전쟁 여파 등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 경영난과 유동성 위기 심화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건설업종을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으로 분류한 내용을 삭제하여 「2026년 부산광역시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 8차 변경 공고」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6. 5. 22. 공고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참조 : <https://www.busan.go.kr/nbgosi>)

■ 주요 내용

1. 변경사유

- 건설경기 침체와 중동발 경제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

2. 주요 변경사항

- 건설업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삭제

업종분류	기존(융자 제외 업종)	변경(융자 제외 업종)
건설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일괄 삭제 (→ 전부 지원)

3. 시행일 : 2026. 5. 22.(금)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7

국가철도공단 중소기업기술마켓 상시 공모 안내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해 우수한 공법, 제품 등 신기술을 직접 검증 및 판로를 지원하여 철도 건설 및 개량사업에 적용 가능한 중소기업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자 '기술마켓 등록 상시 공모'를 운영하고 있다.

1. 신청대상 : 철도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정부인증 신기술 및 기타 신기술

- 「건설기술진흥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에 따른 신기술·신제품·특허 등

2. 접수기간 : 공고일 이후 상시 등록

3. 신청방법 : 중소기업기술마켓 포털 접속(<https://techmarket.kr>)

- 회원가입 및 통합 공모 → 인증공모 → 공모 신청 → '국가철도공단' 선택 후 서류 업로드

4. 등록방식

- 상시등록 : 철도분야 적용 가능한 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시 신청
- 일괄등록 : 정부인증기관의 인증심의 기술*은 등록심의 면제
- * 철도분야 건설교통신기술, 철도성능검증 인증 기술 등 심의 채택 기술

-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8

모바일 코스카톡 운영에 따른 적극 활용 안내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는 회원사와의 직접 소통 채널인 모바일 '코스카톡(KOSCA TALK)'을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은 물론, 협회의 주요 활동과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코스카톡 활용에 대해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모바일 코스카톡(KOSCA TALK) 활용 안내

코스카톡(KOSCA TALK)은 협회의 모든 회원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한 회원사와의 소통창구로서 주요 정책과 협회 소식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 공사대장 미통보 현황 : 미통보 의심공사 조회 가능
- ▶ 신문고 : 현장의 목소리 등 실시간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비대면 민원 처리 서비스
- ▶ 참여마당 : 시·도회 및 업종별협의회의 중점사업·회의·행사 등을 회원사에 직접 안내

· 접속 방법

- ① sinmungo.kosca.or.kr 주소 입력하여 접속
- ② 모바일 "코스카톡" 다운로드 후 접속
- ③ 우리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 코스카톡 버튼(가운데)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19 | 건설현장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협조 안내

정부에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와 재해 예방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맨홀, 정화조, 집수정, 관거 등 밀폐공간 질식재해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폭염 예보 등으로 인해 밀폐공간 내 작업환경의 위험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사전 점검과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전수칙 및 점검표를 활용하여 건설현장 내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0 | 건설현장 해체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협조 안내

최근 고가도로 철거공사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해체·철거 현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 해체·철거공사 주요 사례와 재발방지 대책 및 실무 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1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상담 및 조정 신청 안내 (조달청 연계)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원·하도급사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거래 분쟁을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달청과의 업무 협조를 통해 전문건설업체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설계변경 관련 하도급 분쟁 사례'에 대해 조달청의 공식 자문 의견을 받아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조정 및 상담 대상 (불공정 거래행위)

- 하도급 대금(공사비) 미지급 및 지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 미반영
- 물가 변동(연동)에 따른 대금 미조정
- 부당 특약 설정 및 부당 감액 행위 등

2. 핵심 지원 사항 (신규)

- 설계변경 관련 분쟁 시 조달청 자문 의견 연계 지원

3. 이용 안내

- 비용 : 전액 무료 (소송 대비 시간 및 비용 대폭 절감)
- 상담 및 문의처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전화: 02-549-2105~6
 - 홈페이지 : www.csdmc.or.kr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2 |

2026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안내

해외건설협회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 전문건설기업
- 주요 자문기관 : 국내 대형 법무법인(김앤장, 광장 등), 노무법인, 회계법인 및 실무 전문가

2. 주요 지원내용 (자문비용 전액 지원)

- 법률 : 해외건설 계약 독소조항 검토, 공기지연 리스크 및 분쟁 자문 등
- 노무 : 현지 파견 인력 처우, 국내외 노동법 적용 및 인사관리 자문 등
- 세무 : 국가 간 이중과세, 현지 세무 신고 및 환급 관련 자문 등
- 실무 : 계약·클레임, 금융·재무, 물류·조달, 리스크 관리 등 전문가자문

3. 신청안내

- 신청방법 : 신청 서류 작성 후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붙임 참조)
 - 이메일 : consulting@icak.or.kr
- 제출서류 :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양식,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각 1부

4. 문의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175)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3 |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점검표 안내

최근 건설현장 내 달비계 작업 중 추락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짐에 따라 달비계 작업시 안전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에 해당)

이에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달비계 작업 관련 「안전수칙」 및 「안전점검표」 등을 회원사에 안내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4 |

공사현장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10대 안전수칙 안내

최근 공사현장 내 감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장마철(6월~8월) 대비 감전재해 예방 10대 안전수칙 및 점검사항(OPS)'을 배포하였다.

* (1.15.) 전북 전주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접지기구 설치 작업중 감전 (사망 1명)

(5.27.) 대구 동구 소재 공사현장에서 사다리를 들고 이동 중 고압선에 감전(추정) (부상 2명)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5 |

조달청 시설공사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 시행 안내

조달청에서는 부실·무자격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전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사무실 등)을 현장 실사로 검증하는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도를 2026년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전문건설업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자료 미제출 시 적격심사 감점(△10점)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며, 국토부 및 지자체에 통보되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회원사에서는 입찰 참여 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1. 시행일자 : 2026년 7월 1일(수) 이후 조달청 입찰공고분부터

2. 조사대상 :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예정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3. 조사방법 : 서류 심사 및 사무실 현장 실사 (불시 방문 원칙)

4. 중점항목

- 기술자 상시근무(급여 내역 등)
- 실질자본금
- 사무실 독립성 및 실운영 여부

※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회 홈페이지(<http://www.kosca21.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26 |

2025년말 기준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시 안내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할 2025년도 전문건설업 경영상태 평균비율이 공시되었다.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은 다음과 같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경영상태 평균비율〉

구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부채비율	62.85%	59.40%	68.53%	61.70%	70.23%	66.65%
유동비율	210.35%	169.14%	157.22%	176.74%	137.82%	205.73%

구분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57.45%	52.98%	161.21%	129.23%	130.91%	62.08%
유동비율	153.55%	232.41%	154.38%	127.28%	161.52%	123.26%

※ 적용기간 : 2026. 7. 1 ~ 2027.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전문건설사업자 전체 경영상태 평균비율(종합공사 입찰용)〉

부채비율	유동비율
97.87%	144.73%

※ 적용기간 : 2026. 7. 1 ~ 2027. 6. 30일 입찰공고분 까지 적용



불법 재하도급 계약 후 해지한 경우에도 제재처분을 받는지 여부

질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재처분을 받는지요.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의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은 그가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건설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고, 같은 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재하도급 받은 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2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재하도급한 후 해당 계약을 해지하였더라도 하수급인 및 무등록업자는 상기 규정에 따라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국 지역협력과, 2017-04-11



하도급 참여제한기간 內 공기연장 변경계약 가능 여부

질의

건설법 제29조의3에 따른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는 하도급 제한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법 제29조의3(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에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동안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에 신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기존 하도급 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에서 공공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하수급인 중에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고, 변경요구를 받은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지원과, 2026.06.12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다220034 판결
사건명: 자재임대료등

판시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하수급인이 가설자재 대여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발주자(또는 도급인)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 및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에 하수급인의 자재 대여대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므로, 이미 원사업자에게 지급 완료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자재대여업자)의 몫은 공제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의 준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준용된다.

2. 직접지급의무의 한도

- 발주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3. 기지급 금액의 공제

- 직접지급의무의 구체적 범위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내역 중 해당 하수급인의 공사(자재 대여) 부분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제한된다.

4. 사안의 적용

- 피고(도급인)가 하수급인의 기성금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해 왔고, 원고(자재대여업자)의 기지급 청구 당시 피고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 원고의 과거 자재 대여대금(341,889,300원)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전체 청구액 중 해당 금액을 공제한 미지급 잔액(16,668,300원) 범위 내에서만 직접지급의무가 존재한다.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시사점

1. 직접지급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계산 기준 제시

- 하수급인(또는 자재대여업자)이 도급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때, 도급인이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 완료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의 몫이 있다면 이는 도급인의 직접지급 의무 범위에서 명확히 제외(공제)되어야 함을 확정함

2. 도급인의 이중지급 위험 방지

- 원사업자가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고도 하수급인이나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지 않은 경우, 도급인이 이미 지급한 부분까지 다시 하수급인에게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불합리한 법적 책임을 차단함

3. 연관 청구(선택적 병합)의 일괄 파기

- 주된 청구인 직접지급 청구 부분이 파기됨에 따라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양수금 청구 부분 역시 법리적 연관성에 의해 함께 파기되어 원심에서 재심리되어야 함을 명시

의의

본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및 자재대금 직접지급제도에 있어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대금 지급의무의 잔액 한도로 엄격하게 제한한 기존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한 판결임. 하수급인의 채권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급인이 이미 원사업자에게 적법하게 지급한 기성대금의 범위를 초과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판결임.

건설관련 법 상담

직불 약정 후 공사대금채권 압류 대항력

발주자 A, 수급인 B, 하수급인 C 세 당사자가 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은 A가 B의 입회하에 C에게 직접 지급하고, B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다. 공사가 진행되던 중 B의 채권자가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했다. A가 이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면 해당 채권은 보전돼 C가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지만, 대항하지 못한다면 C의 대금 수령이 불투명해진다. A는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까.

전문가 답변 : 법원은 이같은 직접지급 약정의 법적 성격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본다. 어느 쪽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압류 대항력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진다.

첫째, 약정의 취지가 공사 시행 여부와 무관하게 B의 A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를 C에게 이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채권양도에 해당한다. 이 경우 A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통상 내용증명우편)에 의하지 않는 한, A는 채권양도를 근거로 B의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결국 C는 대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에 놓인다.

둘째, 약정의 취지가 C가 실제로 공사를 시행 또는 완료한 범위 내에서만 A가 C에게 직접 지급하고 B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압류명령 통지가 A에게 도달하기 전에 C가 해당 공사를 실제로 이행한 부분의 대금은 처음부터 B의 채권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A는 그 범위에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C의 대금 청구권도 보전된다(대법원 2006다63884 판결).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오간 문자·메일·공문·확인서 등을 종합해 의사를 추단하는 수밖에 없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후자, 즉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직불 약정을 체결할 때부터 단순한 채권양도가 아닌 실제 공사 이행을 전제로 한 직접지급임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이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계약보증금은 위약벌 아닌 손해 예정으로 봐야

하수급인 A는 수급인 B로부터 토공·철콘공사를 150억원에 하도급받으면서 계약금액의 10%인 15억원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했다. 계약서에는 A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을 B에게 귀속 시키고, 실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약정돼 있었다. 이후 A의 사정으로 마무리 공정을 남겨두고 공사가 중단됐다. B는 실제 손해가 10억원임을 인정하면서도 공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외에 계약보증금 15억원은 위약벌에 해당한다며 전액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B의 주장은 타당할까.

전문가 답변 : 이 사안의 핵심은 계약보증금이 위약벌인지,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여부다. 위약벌로 보면 실제 손해액과 무관하게 전액 몰취가 가능하지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계약보증금 약정의 목적을 살펴보면, 단순히 심리적 압박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A가 계약을 불이행해 하도급계약 관계를 청산하게 될 때를 대비해, B가 최소한으로 보장받아야 할 손해액을 미리 예정해 귀속시키는 한편, 실제 손해액이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추가 청구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는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 예정의 전형적인 구조다. 대법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위약벌이 아닌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계약서에 지체상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결국 이 사안의 계약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실제 손해액 10억원을 크게 웃도는 15억원 전액을 B가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어 법원의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다. B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 범위 내에서만 계약보증금을 가져갈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세무관련 법 상담

이수용 세무사의 '건설기업 세무회계'



이수용 세무사

코타 조세연구소 대표

<건설업 기업진단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은 건설업 기업진단 및 실태조사에서 마찰이 매우 심한 계정과목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업자는 실재성을 주장하나 진단자 또는 심사자는 기업진단지침의 취지에 비춰 부실자산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 스스로 적극적인 주장을 해야 하나 이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재고자산의 특성상 이익조절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1. 재고자산의 정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재고자산을 특별히 정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건설업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재료, 가설재(유형자산에 계상된 경우 포함), 수목, 조경수(유형자산에 계상된 입목 포함)
- 2) 건설용지 3) 미(완)성공사, 미완성주택, 미완성상가 4) 완성주택, 완성상가, 완성건물

이상의 재고자산이 건설업 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첫 번째가 실재성의 입증입니다. 계정과목에 표시된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진단대상사업 즉, 건설업과의 관련성입니다. 아무리 실재성이 입증됐다고 해도 건설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실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재고자산 기업진단지침의 기본 입장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절차는 다른 계정과목과 달리 반드시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를 거치게 됩니다. 재고자산은 당기에 매출원가 또는 공사원가에 산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이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고자산의 금액이 커질수록 원가가 줄어들게 되며 이는 당기순이익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익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하는 회사가 자본총계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택하지 않고 재고자산을 임의로 과다 계상하는 시도가 흔하게 발생하므로 재고자산의 실재성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며 결과적으로 부실자산을 전제로 하게 됩니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부산 전문건설업체 등록현황

(2026. 06. 30. 기준)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중구	41	68
동구	74	128
서구	31	42
사하구	107	155
영도구	23	36
동래구	235	325
남구	134	179
금정구	296	430

지 역	업체수	등록수
연제구	166	254
해운대구	302	425
수영구	135	213
부산진구	183	258
북구	114	159
사상구	156	208
강서구	334	470
기장군	246	367
합계	2,577	3,717

부산 진출·입 전문건설업체 현황

(2026. 04. 01. ~ 2026. 06. 30.)

전출업체 현황
(주)금원건설 (대표자:손상인, 경남)
(주)도성 (대표자:이성중, 대구)
동신공영(주) (대표자:주선민, 경기)
(주)보민건설 (대표자:김충연, 경남)
(주)알지텍 (대표자:윤은숙, 경남)
(주)에스알이테크 (대표자:김종봉, 서울)
장인건영(주) (대표자:조현규, 인천)
전입업체 현황
(주)강두건설 (대표자:강학두, 경남)

전입업체 현황
금하건설산업(주) (대표자:고지선, 전북)
(주)다온건설산업 (대표자:정미리, 경남)
(주)더뷰 (대표자:정혜인, 강원)
(주)맑은물 (대표자:윤영해, 충남)
(주)부산파트너스 (대표자:이연지, 충남)
(주)유원토건 (대표자:원지운,손병노, 경기)
(주)청구가이아건설 (대표자:송백관, 대구)
태가건설(주) (대표자:정유진, 경기)
(주)태건 (대표자:김규량, 경남)

부산 전문건설업체 상호변경 현황

(2026. 04. 01. ~ 2026. 06. 30.)

변경전	변경후
(주)일성건설	(주)맑은물
(주)충청파트너스	(주)부산파트너스
석봉건설(주)	(주)에스바운더리
대운건설중기(주)	(주)예보이엔씨
오즈디자인랩	이담공간

부산 전문건설업체 대표자변경 현황

(2026. 04. 01. ~ 2026. 06. 30.)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주)가원	피재희	피재희,김은희
거광조경건설(주)	강태욱	송치선
(주)광천	정용수	정용수,정순철
(주)다운엘리베이터	성우경	윤향석
(주)단호개발	노영훈	이영신
대가건설산업(주)	장영태	허윤진
대산건설(주)	이성덕	김태조
(주)대산이앤씨	이희택	윤형근
(주)대한이엔지	조성진,오세진	조성진,박미숙
(주)더기린	조희승	조희승,안정수
(주)두성조경	이정희	이윤지
(주)디오건설	장정순	김민정
(주)레몬하우스	김선희 외 23명	김선희 외 22명
(주)맑은물	정상	윤영해
(주)무창건설	전미희	강신중
삼광건설산업(주)	김현영	김현영,김병수
(주)성익건설산업	정건모,정진영	정진영
(주)세일(SEIL CO.,LTD.)	진기섭	김미숙
센텀엘앤씨(주)	임성원	임영진
(주)수폴림	박노부에	노태형
(주)신영티엔지	김종백	최원형
(주)신원테크	조희승	조희승,안정수
쌍백토건(주)	박순희	박순희,공성하
아트피엔씨(주)	권혁호	권택현
(주)악봉건설	장주덕	장시준
(주)에스바운더리	한상호	한상호,박병훈
(주)에이치제이중공업	유상철,김완석	유상철,송경환

상호명	변경전	변경후
(주)에코그린	김나은	김나은,김한기
(주)에코조경나무병원	황보창,오정희	오정희,송일지
엘에스마린솔루션(주)	구본규,김병옥	김병옥
(주)에보이엔씨	오영태	이예주
(주)우랑종합건설	김택훈,박남길	김택훈
(주)원석토건	김준형	김경일
(주)유건알미늄	전인주	임지유
(주)유성건업	김윤지	신원국
(주)이리스디자인	남화나	백종민
(주)이선건설	김익규,허성환	김익규
(주)이화기술단	이봉재	이봉재,이류경,이유원
(주)일신기업	김성열	이희숙
(주)일우종합개발	엄혜경,이동준	엄혜경
(주)재연조경	김준영	이경민
(주)진양건설산업	이다혜	이성준
(주)진웅건설	성가용	김태영
(주)천지개발산업	이성준	이다혜
초석에이치디(주)	최균영,최슬기,문상욱	최슬기,문상욱
케이알토건(주)	박한기	안재현
(주)태평양해양산업	이효진	권기현
(주)통영산업건설	신용수	신용수,강재준
(주)통영산업건설	강재준	신용수
(주)하나토건	장종태	조광제
(주)한국도장기술	최상철	최상철,이원철
(주)한국칼라콘크리트	강보민	강보화
(주)현택승강기	강정애	김덕호

부산사회 신규회원 현황

(2026. 04. 01. ~ 2026. 06. 30.)

 임경숙 T : 051-555-4578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변영민 T : 051-337-4316 보유업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김성현 T : 051-632-2721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함창규 T : 051-803-7493~4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방수민 T : 051-724-5242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송교연 T : 051-714-3365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안세민 T : 051-863-8550 보유업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박병재 T : 051-868-3813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우재현 T : 070-7607-6703 보유업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권해찬 T : 051-751-6601 보유업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김지수 T : 051-502-1888 보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	 고현준 T : 051-941-6683 보유업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KOSCA 중앙회 업무단신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4월 1일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여받는 영예를 안았다.
- 공정거래의 날은 기업들의 자율준수와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협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수급사업자 단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 ▷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5월 28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9개 종합건설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전문건설업계가 주최해 원·하도급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에는 △적기 현금 지급 및 유보금 관행 개선 △자재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하도급대금 연동제 활성화 △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 특약 근절 등이 담겼다.
- 특히, 종합건설사의 하도급분쟁 해결기구 설치·운영을 협약에 포함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하반기에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협약 이행 상황과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후속 관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단신

- ▷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은 5월 30일부터 모바일 앱을 통해 각종 서류의 진위확인 및 신용평가 서류 제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기존에는 발급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점 문의 또는 PC 접속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보증서에 한정됐던 QR코드 확인 서비스를 공제증권과 각종 증명원 등 주요 발급 서류까지 확대했다.
- 아울러 조합원뿐만 아니라 보증채권자, 피공제자, 공공기관 등 문서 수령인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발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이용 편의성과 대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회 2026년 3/4분기 주요일정 안내

일 자	주요일정	비 고
2026. 7. 30(목)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 공시	
2026. 8. 28(금)	2026년 운영위원 연수회	
2026. 9. 8(화)	2026년 제2차 부산전문건설인 단합산행	
2026. 10. 13(화)~14(수)	부산·광주 대표회원 합동연수회	

※ 상기 일정은 협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최고의 건설업 윤리 및 실무종합 교육기관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근거하여 건설업을 신규로 등록한 재(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한 경우 제외) 및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업 신규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교육이수가 의무적이며, 영업정지기간 중인 건설업체의 경우는 동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기간이 최대 15일 감경될 수 있기에 교육이수가 권장된다.

2026년 건설업 교육 일정안내

01 교육대상

- **의무교육대상 : 신규건설 등록업체**
 - 6개월 이내 등기임원(대표자 포함) 중 1인 교육 이수
 - **벌칙: 6개월 이내 미이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및 제99조
- **임의교육대상 : 영업정지 처분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교육 이수
 - **감경기준 : 대표자 15일, 등기임원 1인당 5일 감경**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02 교육내용 및 비용

- **내용 :** 건설산업관련법령(건설법·하도급법·계약법), 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 윤리경영
- **시간 :** 8시간 (09:00~18:00)
- **교육비용 :** 집합교육 150,000원 / 이러닝교육 135,000원

03 교육신청 및 결제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및 교육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 건설교육센터 <http://edu.kosca.or.kr> (팩스 02-3284-1066)
 - 입금계좌 : 기업은행 525-001144-04053 (예금주 (사)대한전문건설협회)
- **문의 :** 건설교육센터 ☎ 02-3284-1076, 1080

04 2026년 온라인(이러닝)교육 일정 (7~9월)

교육차수	신청 마감일	학습가능 기간		비 고
		부터	까지	
제26기	7.6	7.9	7.15	
제27기				
제28기	7.20	7.23	7.29	
제29기	7.27	7.30	8.5	
제30기	8.3	8.6	8.12	
제31기				
제32기	8.24	8.27	9.2	
제33기	8.31	9.3	9.9	
제34기	9.7	9.10	9.16	

2026-건설안전실-402

안전이
가장
바릅니다

장마철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여름철 날씨 전망 ※ 기상청 발표 '26년 여름철 기후 전망 참조


강수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이 내릴 가능성



기온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


장마철 사고유형별 핵심안전수칙
집중호우로 익사, 굴착면·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 ✓ 집중호우 예측 및 경보 체계 구축
- ✓ 굴착면 천막 덮기 및 배수로 설치·점검

전기 작업 중 감전


- ✓ 누전차단기 설치, 절연 및 접지 조치
- ✓ 작업 중 절연보호구 착용

철골 공사 중 떨어짐


- ✓ 악천후(우천, 강풍 등) 시 작업중지
- ✓ 추락방호망 설치, 안전대 체결

태풍·강풍에 의한 무너짐


- ✓ 각종 시설물 결속 상태 점검·보강
- ✓ 자재 등 낙하물 우려 장소 출입 통제


온열질환 예방 수칙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2026-건설안전실-438

건설현장 열사병 예방 및 대응 가이드

안전이 가장 빠릅니다



열사병의 핵심 증상인 열이 오르면서 땀이 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uick Message

건설현장은 옥외작업 특성 상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취약합니다. 온열질환 중 열사병은 열탈진(일사병)과는 발병 원인과 증상이 다르며,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릅니다.

열사병이란?

체온을 조절하는 뇌속의 체온조절 중추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그 기능을 상실한 질환으로 물, 그늘, 휴식으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 즉시 응급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

온열 질환 종류 및 증상

열사병

체온조절 기능 장애 (중추신경 이상)



증상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열탈진(일사병)

수분과 염분 손실로 발생



증상 땀을 많이 흘림, 탈수증상, 창백함, 근육경련

열실신

뇌로 가는 혈액량이 부족



증상 어지럼증, 실신

열경련

근육에 일시적인 경련



증상 근육 경련

열사병 vs 열탈진(일사병) 증상 차이

- ✓ 체온 40도 이상
- ✓ 뇌속 중추신경계 이상, 의식저하 등
- ✓ 땀이 나지 않는 상태가 가장 큰 특징
- ✓ 신속한 의료 조치 필요

즉시 119 신고 후 물, 그늘, 휴식 등 조치



열사병

열탈진(일사병)

- ✓ 체온 37~40도
- ✓ 어지러움, 구토, 두통, 피로 등
- ✓ 땀이 많이 남, 창백함, 근육경련
- ✓ 물, 그늘, 휴식으로 증상 개선 가능

증상 미개선 시 119 신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신고

열사병(의심자) 발생 대응 절차

1 즉시 119 신고

증상 또는 의심자 확인
즉시 119 신고

2 시원한 장소 이동

그늘, 에어컨 등 시원한
공간으로 이동

3 체온 낮추기

옷을 헹글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4 수분공급

의식이 없을 경우
수분섭취 절대 금지

5 구급대 인계

119 도착까지 지속
냉각 실시 및 관찰

의식유무

있음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헹글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섭취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헹글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병원으로 후송

119 구급대 요청

부산의 숨은 명소

바다를 품은 삶의 터전, 영도 해녀촌

해녀촌



부산 영도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인 섬이다. 그중에서도 영도 해녀촌은 부산의 해녀 문화와 역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다. 화려한 관광지와는 달리, 이곳에는 오랜 세월 바다를 지켜온 해녀들의 삶과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영도의 해녀 문화는 1887년 제주 해녀들이 처음 영도로 건너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부산 앞바다는 우뚝가사리와 미역이 풍부한 황금 어장이었고, 이를 거래하는 시장 또한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던 제주 해녀들은 영도를 거점으로 삼아 물질을 시작했고, 이후 부산 해녀 문화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특히 197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더 많은 제주 해녀들이 영도로 이주했다. 수출 산업의 성장으로 남편들이 장기간 외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해녀들은 직접 바다에 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다. 차가운 바다를 건디며 하루하루 삶을 이어간 해녀들의 강인함은 오늘날 영도를 대표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역사를 기리기 위해 영도에는 해녀문화전시관과 해녀 동상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시관에서는 영도 해녀들의 생활상과 어업 문화, 그리고 바다와 함께한 삶의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다.

영도 해녀촌에서는 지금도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전복, 해삼, 멍게, 성게, 소라 등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다. 바다에서 갓 건져 올린 해산물은 화려한 조리 없이도 깊은 풍미를 전하며, 부산 바다가 품은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게 한다. 눈앞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와 파도 소리, 그리고 해녀들이 살아온 시간이 더해져 이곳만의 특별한 분위기를 완성한다.

영도 해녀촌은 단순히 해산물을 맛보는 곳이 아니다. 바다를 삶으로 받아들이고 가족을 지켜온 해녀들의 땀과 용기, 그리고 부산의 해양 역사가 함께 숨 쉬는 공간이다. 여행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한 지역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그 여행은 더욱 깊어진다. 영도 해녀촌은 부산의 바다와 전통, 그리고 세월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소중한 명소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치첸이트사

멕시코 유카탄반도 중심부에는 천 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온 거대한 고대 도시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치첸이트사(Chichén Itzá)다. 칸쿤에서 서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이곳은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2007년에는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한때 마야 문명의 정치·경제·종교의 중심지였던 치첸이트사는 지금도 수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멕시코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치첸이트사의 가장 큰 상징은 쿠클칸 피라미드(엘 카스티요)다. 높이 약 30m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계단식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마야인의 뛰어난 천문학과 수학적 지식이 집약된 공간이다. 사방에 놓인 계단은 각각 91개이며, 정상까지 포함하면 모두 365개의 계단이 되어 1년의 날짜를 상징한다. 특히 매년 춘분과 추분이 되면 오후의 햇빛이 계단 난간에 삼각형 그림자를 만들어 마치 거대한 뱀이 내려오는 모습이 연출된다. 이는 깃털 달린 뱀의 신인 쿠클칸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이 이 신비로운 광경을 보기 위해 치첸이트사를 찾는다. 도시 안에는 피라미드 외에도 다양한 건축물이 남아 있다. 중앙 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구기장(The Great Ball Court)에서는 당시 사람들이 신성한 의식을 겸한 공놀이를

즐겼으며, 전사의 신전, 천문관(엘 카라콜), 천 개의 기둥 광장 등은 마야 문명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건축 기술과 과학적 사고를 갖추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원형 구조로 지어진 천문관은 별과 행성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해지며, 자연의 변화를 읽고 이를 삶과 종교에 활용했던 마야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치첸이트사의 매력은 거대한 규모만이 아니다. 회색빛 돌로 이루어진 건축물 위로 따뜻한 햇살이 내려앉고, 광장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오래된 역사의 흔적을 스쳐 지나갈 때면 이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무너진 돌기둥과 정교한 조각 하나하나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문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며,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인간의 창조성과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없이 전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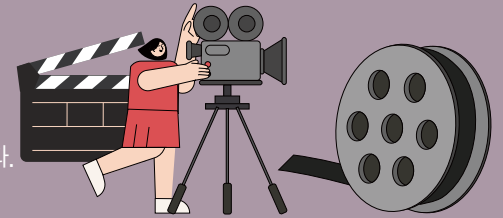
치첸이트사는 단순히 오래된 유적지가 아니다. 자연과 천문, 종교와 건축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완성된 인류 문화유산이다. 천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탄과 경이로움을 선사하는 이유는, 이곳이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문화와 지혜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치첸이트사는 오늘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시간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마야 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들려주고 있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Movie

잔잔한 여운과 따뜻한 감동을 남기는 영화는 메말랐던 감성을 풍부하게 만들며 생각을 환기시킨다.
잊고 있던 마음의 여유를 찾아줄 흥미롭고 감동적인 영화를 소개한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

개봉 2026.04.29 감독 데이빗 프랭클

출연 메릴 스트립, 앤 해서웨이, 에밀리 블런트, 스탠리 투치

패션 영화의 고전으로 사랑받았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약 20년 만에 새로운 이야기로 돌아온다. 전설적인 패션 매거진 편집장 미란다 프리슬리를 비롯해 익숙한 인물들이 다시 등장하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패션 산업이 마주한 새로운 현실을 그려낼 예정이다.

이번 작품은 종이 잡지가 중심이었던 시대를 지나 디지털 콘텐츠와 SNS가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현재를 배경으로 한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전통과 혁신 사이의 갈등, 리더십의 의미, 그리고 성공을 위해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화려한 의상과 감각적인 스타일링은 물론, 빠르게 변화하는 패션 업계의 치열한 경쟁과 인물들의 성장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특히 전편을 사랑했던 관객이라면 미란다 프리슬리 특유의 카리스마와 날카로운 대사, 세련된 연출을 다시 만나는 반가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새로운 세대의 캐릭터들이 더해져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변화한 가치관과 패션 산업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담아낸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단순히 화려한 패션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열정과 도전, 그리고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작품이다. 패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물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한 번 깊은 공감과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토이스토리 5

개봉 2026.06.17 감독 앤드류 스톤트, 맥케나 해리스

출연 톰 행크스, 팀 알렌, 조안 쿠삭, 그레타 리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디즈니·픽사의 대표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가 전편 이후 7년 만에 다섯 번째 이야기로 돌아온다. 오랜 시간 우정과 성장, 이별의 의미를 그려온 시리즈는 이번 작품에서도 시대의 변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따뜻하게 담아낸다.

이번 이야기의 시작은 스마트 태블릿 '릴리패드'의 등장이다. 보니의 새로운 친구가 된 디지털 기기로 인해 장난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위기를 맞이한다. 아이들의 관심이 전통적인 장난감에서 스마트 기기로 빠르게 이동하는 현실을 배경으로, 우디와 버즈를 비롯한 장난감 친구들은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된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하는 과정은 시리즈 특유의 감동을 이어간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작품답게 1편부터 4편을 기억하는 관객이라면 반가운 오마주와 숨겨진 디테일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익숙한 캐릭터들의 작은 행동과 대사, 장면 곳곳에 담긴 시리즈의 흔적은 오랜 팬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한다. 반면 처음 시리즈를 접하는 관객도 독립적인 이야기 구조 덕분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무엇보다 토이 스토리 5는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현실을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도, 결국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다.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우정과 신뢰, 함께했던 추억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다는 메시지는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세대가 바뀌어도 사랑받는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작품으로, 올 여름 가장 기대되는 애니메이션 가운데 하나다.

소통하는 문화공간

Healing Book

하루하루를 챗바퀴처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영혼의 안식처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톡톡이 읽을 만한 분야별 힐링 북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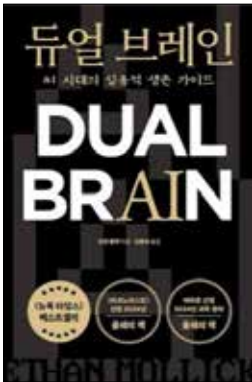


첫 여름, 완주

김금희 저 / 출판사 무제(MUZE) | 발매일 : 2025년 05월 08일

김금희 작가의 장편소설 『첫 여름, 완주』는 한여름의 작은 마을을 배경으로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진 선배를 찾아 완주를 찾은 성우 손열매는 해녀가 아닌 장의사 겸 매점을 운영하는 수미의 어머니 집에 머물며 개성 넘치는 이웃들을 만나게 된다.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인물들은 따뜻한 연대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완주해 나간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소설' 프로젝트의 첫 작품답게 대사와 장면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웃음과 슬픔을 섬세한 문장으로 풀어낸 김금희 작가 특유의 따뜻한 시선은 일상의 소중함과 사람 사이의 온기를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감동을 전하는 작품이다.



듀얼 브레인

이선 몰릭 저 / 출판사 상상스퀘어 | 발매일 2025년 03월 19일

생성형 AI가 우리의 일과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지금, 듀얼 브레인 AI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실용적인 안내서다. 저자 이선 몰릭은 와튼 스쿨 교수이자 『타임』이 선정한 인공지능 분야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AI 기술의 발전이 개인과 사회,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쉽고 깊이 있게 설명한다.

이 책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모두 대체하기보다 업무 방식과 역할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인간과 AI가 역할을 분담하는 '켄타우로스' 모델과 AI와 긴밀하게 협업하는 '사이보그' 모델을 소개하며, 생성형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복잡한 기술 용어 대신 다양한 사례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활용해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며, AI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로 바라보게 한다. AI 시대를 준비하는 직장인과 학생은 물론, 미래 사회를 이해하고 싶은 모든 독자에게 추천할 만한 교양서다.



싯다르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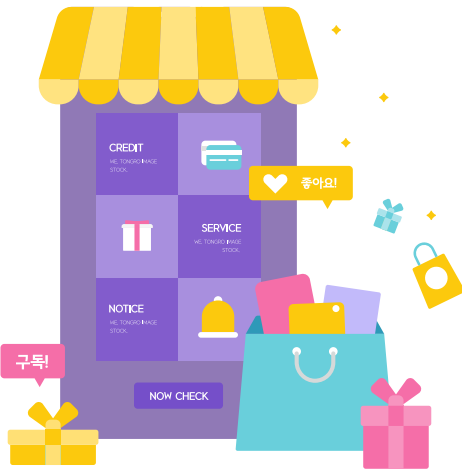
헤르만헤세 저/ 출판사 민음사 | 발행일 : 2002년 01월 20일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 싯다르타는 진정한 깨달음과 자아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여정을 그린 성장소설이다. 브라만의 아들로 태어난 싯다르타는 세속을 떠나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고, 부처의 가르침마저 스스로의 깨달음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달은 뒤 홀로 삶의 의미를 찾아 나선다. 사랑과 부, 욕망을 모두 경험한 끝에 그는 강가의 뱃사공으로 살아가며 비로소 삶의 본질과 내면의 평화를 마주하게 된다.

동양 철학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은 이 작품은 단순한 종교 소설을 넘어 '진정한 깨달음은 타인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헤세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와 깊이 있는 사유는 오늘날에도 많은 독자들에게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며,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고전으로 자리하고 있다.

싯다르타는 단순한 성장소설이나 종교소설을 넘어, 인간이 평생 마주하는 질문인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용하지만 깊이 있게 탐구하는 작품이다. 헤세 특유의 서정적인 문체는 독자에게 사색의 여백을 남기며, 책장을 덮은 뒤에도 오랫동안 마음속에 잔잔한 울림을 전한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펼쳐볼 가치가 있는 시대를 초월한 고전이다.

소유보다 경험, 구독경제가 바꾸는 소비의 미래



한때 소비의 기준은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는가'였다. 자동차를 사고, 가전을 장만하고, 책과 영화를 하나씩 구매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그러나 최근 소비의 중심은 점차 '소유'에서 '이용'으로 옮겨가고 있다.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이어가는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가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구독경제는 이제 영상이나 음악 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자동차와 정수기, 커피, 꽃, 화장품, 명품 가방, 가구, 의류는 물론 반려동물 용품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소비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하며, 기업은 제품 판매를 넘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고 있다. '한 번 팔고 끝나는 소비'에서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소비'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달라진 사회 구조가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높아진 주거비는 많은 물건을 오래 보관하기보다 필요한 순간에만 이용하는 생활 방식을 만들었다. 여기에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도 영향을 미쳤다. 최신 전자기기나 패션 제품은 몇 년만 지나도 새로운 모델이 등장하고, 소비자들은 하나를 오래 소유하기보다 다양한 제품을 경험하는 데 더 큰 가치를 두기 시작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문화도 구독경제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제품을 공유하거나 순환해서 사용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생산과 폐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구나 유아용품, 명품 의류 등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하는 서비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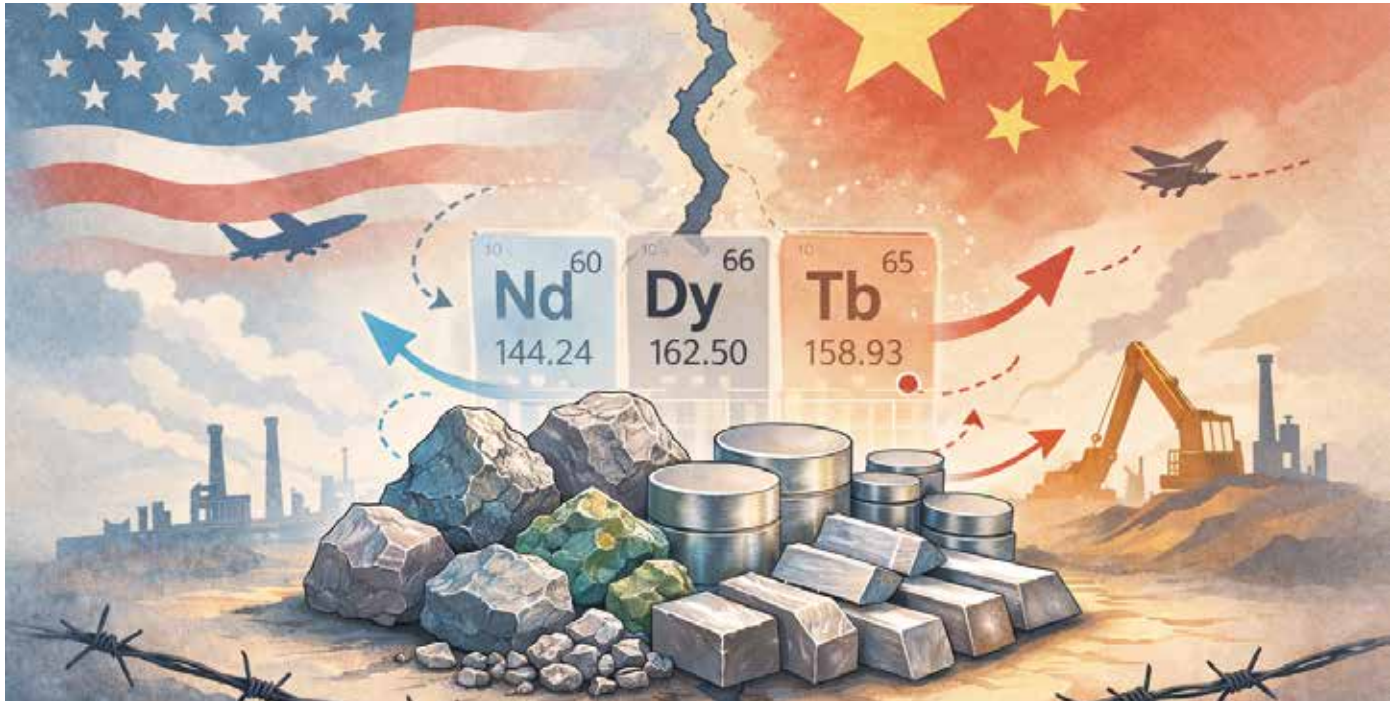
기업 역시 구독 서비스를 통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얻는다. 소비자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업은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고객이 계속 이용하고 싶은 경험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한 경쟁력이 되었다.

물론 모든 것을 구독하는 시대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다 보면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비용을 지불하는 '구독 피로감'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소비 습관도 함께 필요하다.

소유는 언젠가 낡지만, 경험은 오래 기억된다. 구독경제는 단순한 결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현대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새로운 소비 문화다. 앞으로 우리는 물건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보다 어떤 경험을 했는지로 삶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희토류 전쟁

[미래 산업의 패권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



위 이미지는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 전기차 한 대, 풍력발전기 한 기, 서로 전혀 다른 제품처럼 보이지만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공통된 핵심 소재가 있다. 바로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다. 희토류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개의 원소를 통칭하는 광물 자원으로, 강력한 영구자석과 반도체, 전기차 모터, 항공우주 산업, 인공지능(AI) 서버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원료다. 이름처럼 희귀해서라기보다 경제적으로 채굴과 정제가 어렵다는 특성 때문에 전략 자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세계 각국은 이 희토류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희토류는 단순한 광물이 아닌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 카드가 되었다. 현재 희토류의 채굴은 여러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정제와 가공 분야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정책 변화만으로도 전 세계 첨단 산업이 영향을 받을 정도다.

희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대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전기차 모터에 사용되는 네오디뮴 자석은 작은 크기에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며, 풍력발전기의 대형 발전기와 첨단 전투기, 드론, 미사일 유도 장치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된다.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 역시 다양한 희귀 광물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호주와 캐나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적극 투자하는 이유도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 비중이 높은 만큼 희토류 확보는 더 이상 자원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존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희토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지만, 그 영향은 우리의 일상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전기차 가격, 스마트폰 생산, 반도체 공급, 신재생에너지 확대까지 모두 희토류 공급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 앞으로의 세계 경제는 석유를 둘러싼 경쟁을 넘어,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을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기술 혁신의 시대는 뛰어난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자원과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 또한 국가 경쟁력이다. 희토류를 둘러싼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결정하는 새로운 패권 전쟁이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다.

냉장고 정리의 시작 '한칸 비우기'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정리가 필요한 신호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를 단순한 보관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정리 전문가들은 냉장고를 '순환하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음식은 오래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소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냉장고 속 식재료의 흐름만 바꿔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비를 절약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냉장고 정리의 첫 번째 원칙은 '한 칸 비우기'다. 냉장고를 빈틈없이 채우면 공기 순환이 어려워지고 냉기가 골고루 퍼지지 않아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반대로 전체 공간의 20~30% 정도를 비워두면 냉기 순환이 원활해지고 필요한 식재료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공간의 여유는 정리의 시작이자 식재료를 오래 신선하게 보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두 번째는 같은 종류끼리 모아 보관하는 것이다. 채소는 채소끼리, 유제품은 유제품끼리, 반찬은 반찬끼리 구역을 정하면 찾는 시간이 줄어든다. 자주 사용하는 소스는 문 쪽 선반에, 유통기한이 짧은 음식은 눈높이에 두면 자연스럽게 먼저 소비하게 된다. 반대로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식재료는 안쪽으로 배치하면 효율적이다. 작은 위치 변화만으로도 냉장고는 훨씬 사용하기 편해진다.

밀폐용기와 투명 용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재료를 그대로 보관하면 내용물을 찾기 쉽지만, 동일한 용기에 담아 라벨과 보관 날짜를 적어두면 관리가 훨씬 수월해진다. 특히 남은 반찬은 날짜를 표시하는 습관만으로도 불필요한 음식물 쓰레기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보기 좋은 냉장고는 단순히 깔끔한 공간이 아니라, 식재료를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돕는 생활 도구가 된다.

일주일에 단 10분만 투자해 냉장고를 점검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식재료를 먼저 꺼내 요리하고, 오래된 음식은 과감히 정리하면 냉장고는 늘 여유로운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장을 보기 전 냉장고를 한 번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중복 구매를 막아 자연스럽게 식비 절약으로 이어진다.

냉장고 정리는 단순히 음식을 예쁘게 배열하는 일이 아니다. 식재료의 흐름을 이해하고 소비의 순서를 설계하는 생활 습관이다. 냉장고가 정돈되면 식사 준비가 쉬워지고,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며, 불필요한 지출도 함께 줄어든다. 작은 공간 하나를 정리하는 습관이 건강한 식생활과 경제적인 소비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루 5분, 발바닥 마사지가 만드는 건강한 변화

우리는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면서도 정작 가장 많은 부담을 받는 발은 쉽게 지나치곤 한다. 발바닥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중요한 부위이자 수많은 신경이 모여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하루 단 5분의 발바닥 마사지가 몸 전체의 피로를 풀고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발바닥에는 수천 개의 신경 말단과 혈관이 분포해 있다. 마사지를 하면 발의 긴장이 완화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오래 서서 일하거나 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들은 발이 쉽게 붓고 피로가 쌓이는데, 잠들기 전 잠깐의 마사지 습관만으로도 다리의 무거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발바닥 중앙

발바닥 중앙 움푹 들어간 부분은 걸을 때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는 곳이다. 엄지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 천천히 눌러주면 발바닥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오래 서 있었던 날에는 이 부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덜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발뒤꿈치

발뒤꿈치는 체중이 가장 많이 실리는 부위다. 손바닥으로 감싸듯 잡고 천천히 주무르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면 단단하게 굳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장시간 걸거나 운동한 날에는 발뒤꿈치를 충분히 풀어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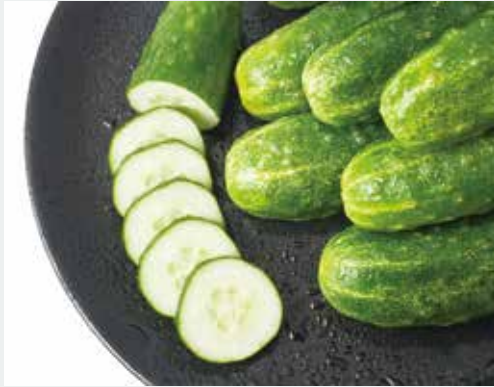
발 안쪽 아치

발의 아치는 몸의 균형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므로, 손가락으로 길게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발의 피로를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반대로 발 바깥쪽은 비교적 자극이 적은 부위이지만, 손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발 전체의 긴장을 고르게 풀 수 있다.

발바닥 마사지는 단순히 발의 피로만 푸는 것이 아니다. 긴장이 완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되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한 뒤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더욱 활발해져 숙면을 취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루를 바쁘게 보낸 뒤 잠들기 전 잠시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되는 셈이다.

건강은 거창한 운동이나 특별한 보양식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이 몸의 변화를 이끈다. 하루 5분 발바닥을 정성껏 마사지하는 것만으로도 피로는 줄고 몸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발에게 잠시 휴식을 선물해 보자.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드는 가장 쉬운 시작이 될 것이다.

무더위를 이겨내는 여름 보양식 오이의 건강한 힘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입맛은 떨어지고 몸은 쉽게 지친다.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면서 수분과 미네랄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이럴 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 식재료가 바로 오이다. 시원한 식감과 풍부한 수분을 가진 오이는 갈증 해소는 물론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제철 음식이다.

오이는 약 9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땀으로 잃기 쉬운 수분을 빠르게 보충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한 칼륨이 풍부해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붓기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여름철 더위로 몸이 무겁고 쉽게 피로해질 때 오이를 섭취하면 몸을 한결 가볍게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타민 C와 비타민 K, 식이섬유도 풍부해 피부 건강과 장 건강에도 좋다. 특히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는 여름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데, 오이는 수분 공급과 함께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 식단에도 자주 활용되는 이유다.

오이는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더위에 지친 몸에 시원함을 더해주는 오이냉국

재료 : 미역2컵, 오이반개, 양파 반 개, 청양고추, 홍고추, 식초 3분의 1컵, 다진마늘1숟갈, 설탕1숟갈, 액젓 1숟갈, 국간장

레시피

- ① 미역은 충분히 불린 뒤 깨끗한 물에 여러 번 헹구어 물기를 꼭 짜고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 ② 볼에 미역을 담고 다진 마늘 1큰술과 송송 썬 청양고추를 넣은 뒤, 채 썬 오이와 양파를 함께 넣는다.
- ③ 식초 2큰술을 먼저 넣어 미역의 비린 맛을 잡고 상큼한 풍미가 배도록 가볍게 버무린다.
- ④ 액젓 1큰술, 참치액, 설탕, 국간장을 넣어 간을 맞추고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도록 섞어준다.
- ⑤ 마지막으로 차가운 물을 붓고 부족한 간은 국간장으로 맞춘다. 기호에 따라 얼음을 띄우거나 통깨를 뿌리면 더욱 시원하고 깔끔한 미역오이냉국을 즐길 수 있다.

Tip. 냉장고에서 20~30분 정도 차갑게 숙성한 뒤 먹으면 더욱 시원하고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독자의견

1. 거북건설(주) 차장 배종천

- 글로벌 이슈 부분에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이라는 내용을 보고 '아...그냥 전쟁이 시작됐구나. 이제 끝났네..' 이게 아니라 전 세계의 물가상승으로 확대됨에 따라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구나를 또 한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특히,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건설자재 가격과 공사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건설업계 역시 글로벌 이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광일도장공사 직원 엄순지

- 이번에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 시설·장비 보유기준을 자세히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안되는지? 그리고 부적격업체는 언제까지 시정이 가능한지 등등 자세한 내용도 같이 게재 부탁드립니다.

독자퀴즈

코스카레터 잘 읽으셨나요?

**Quiz를 풀고
정답을 맞춰주세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역제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본점 소재지 인정 기준은 입찰공고일 몇 일 전까지 해당 시·도에 본점을 두고 있어야 할까요?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

2026.08.11

지난호 독자퀴즈 정답자 발표

1. (주)보광토건 대표이사 허미양
2. (주)태광환경이엔지 대표이사 김채원

정답을 아시는 분은 **협회 홈페이지(www.kosca21.or.kr)**를 통해 **응모(기간:2026.9.30(수)까지)**하시면
추첨하여(정답자에 한함) 커피 상품권을 드립니다.



※ 코스카레터 제48호 오기정정 (2026년 이웃돕기 성금 모금 결과 p.17)

1. 영빈건설(주) (대표자 이준우, 김재진) 모금액 정정 : 기존 300,000원 ⇒ 수정 500,000원
2. 엘코미(주) (대표자 윤예숨) 모금액 정정 : 기존 500,000원 ⇒ 수정 300,000원

불필요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건설사업자는 필수적으로 기한내에 교육받고 신고하여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큰 부담이 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 홈페이지(www.kosca.or.kr) 및
소통앱인 '코스카톡'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각종 법령정보와 공지내용 등을 파악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NO.1

건설업 신규등록 교육 이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 신규 등록자 교육 8시간 이상 이수(건설업 등록 후 6개월 이내)

▲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edu.kosca.or.kr), 02-3284-1076

NO.2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시행령 제26조]

공사대장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보(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원도급 1억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 도급계약 시

▲ 미 통보시 시정명령(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또는 해당공사 완료일까지
미 통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관련 문의 키스콘(cws.kiscon.net) 1588-8456,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NO.3

건설업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의3]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법인(주민)등록번호 등) 변경 시 해당 등록관청에 변경 신청(기재사항 변경 후
30일 이내)

▲ 미신고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관련 문의 본점 소재지 등록관청, 대한전문건설협회 02-3284-1010



국토교통부





2026 Vol.49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30번길 30, 4층(범천동, 전문건설회관)

Tel. 051-633-0260 Fax. 051-633-0261

www.Kosca21.or.kr